

■ 일본 정부,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 위해 ASEAN지역 중심으로 GX 대응 지원

-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전환(Green Transformation, GX) 대응을 실시하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임. 이는 일본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¹⁾
 - 기시다 정권은 아시아 및 중동, 남미 등과의 주요 협력 분야에 탈탄소 대응을 규정할 것임. 이에 대한 일환으로 ASEAN 9개국 및 호주와 AZEC(Asia Zero Emission Community)을 설립하였음. 기시다 총리는 AZEC에서 향후 10년을 고려한 협력계획을 표명할 것임. 전력, 수송, 산업부문을 행동방침을 결정하여 연내에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제2회 AZEC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목표로 함.
 - (전력)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송배전망 정비, 국가 간 CO₂ 수송·저장 규정 마련, CO₂ 계측 및 평가방법 기준 마련
 - (수송) 재생항공연료(SAF) 공급망 구축
 - (산업) 일본 기업이 입지한 공업단지 등에 재생에너지 도입, ASEAN과 차세대 자동차 산업 전략 수립
- 일본 정부는 ASEAN 광역 송전망 구축에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지역과 소비지역을 연결하여 탈탄소화를 촉구할 것임.
 - ※ IEA에 따르면 ASEAN 송전망 강화에 2030년 기준 연간 1.6조엔 이상, 2050년 기준 연간 3.2조엔 이상의 비용이 필요함.
 - 인도네시아에 약 2,000개 유인도서가 있으며, 동 국은 도서 간 송전설비를 개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. 간사이전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으며, 일본 정부는 해당 비용의 약 1/2을 지원할 것임.
 - 일본 전기설비기업인 Kyudenko는 송발전 제어 시스템 기술을 활용하여 북칼리만탄주 도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, 일본 정부는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것임.
 - 한편,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대응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함임.
 - 중국의 국유송전회사인 중국난방전망은 라오스전력공사가 보유한 송전망을 매입하였으며 지난 1월부터 라오스 송전망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음.

1) 日本經濟新聞, 2024.7.9.